



즐거움 국어 시간

2단원.

작품을 감상해요

2단원. 작품을 감상해요

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쓸 수 있다.

생각해볼까요?

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?

추측하며 시를 읽어봅시다.



너 때문에
답답한데
너 없으면
더 답답해

- 하상욱 단편시집

중에서 -

이 환 천

우울한 날
추천해 줄
좋은 곡이
있을까요?

그럴 때는
소곡이나
돼지곡이
좋습니다

1. 경험을 떠올리며 [꽃]을 읽어봅시다.

꽃

정여민

꽃이 얼굴을 내밀었다

내가 먼저 본 줄 알았지만
봄이 쫓아가던 길목에서
내가 보아 주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

내가 먼저 말 건 줄 알았지만
바람과 인사하고 햇살과 인사하며
날마다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

내가 먼저 웃어 준 줄 알았지만
떨어질 꽃잎도 지켜 내며
나를 향해 더 많이 활짝 웃고 있었다

내가 더 나중에 보아서 미안하다.

질문	답
꽃이 얼굴을 내밀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나타낸 것인가요?	꽃이 활짝 핀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.
“내가 더 나중에 보아서 미안하다.”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요?	

질문

답

시에서 말하는 이는
꽃을 얼마나 자주
보았을까요?

친구들과 노느라 자주 못봤을
것입니다.

공부하느라 꽃에게 관심을
주지 못했을 것입니다.

2. [꽃]을 읽고 친구들과 질문을 만들어 함께 해결해 봅시다.

질문

답

“내가 더 나중에 보아서 미안하다.”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요?

꽃에게 무관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.

예쁜 꽃이 피어도 보아 주지 않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.

(1) 이 시에서 인상 깊은 표현은 무엇인가요?

나를 향해 더 많이 활짝 웃고 있었다'라는 부분입니다.
내가 더 나중에 보아서 미안하다.'라는 부분입니다.

여러분들이 찾은 인상
깊은

표현은 무엇인가요?



(2)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?

봄날에 꽃을 보았습니다.

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

생활에서 그때그때 부딪히는

시

지 않고 토해내듯이 쓴 것

* 토해내듯이 : 예쁜 말로 꾸미고 기교부려서 표현하지 않고 솔직하고 소박한 말로 라는 의미

시를 쓸 때는 이렇게 해봐요

무엇을 가만히 보다가 문득 머리를 스쳐가는 것, 참!
하고 느껴지는 것을 붙잡으세요.

마음 속 생각이나 오늘 아침, 저녁에 어디서 보고 듣고
느낀 감동을 되살려서 쓰면 좋아요.

시에는 어떤 것을 적나요?

보고 느낀 것을 쓴 시

겪은 일을 쓴 시

언제나 생각하고 있던 것을 쓴 시

보고 느낀 것을 쓴 시

 가만히 무언가 보고 있을 때
참 좋구나! 하고 마음이 끌린 것

 깊이 느낀 것을 자기 말로
짧게 쓴 시

구름

구름이
해님을 꼭 안고
놔 주지 않았다
그런데 해님이
가랭이 새로
읍지로 바자 나왔다

겪은 일을 쓴 시

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
그 일에 대해서 강하게
느낀 것, 깊이 생각한 것을
자기 말로 짧게 쓴 시

형이 아팠을 때

우리 형이 아파서
어머니가
요쿠르트도 사다 주시곤 한다.
형은 안 먹고
나를 준다
그러면 나는
형아 먹어 하고
밖으로 뛰어나온다.

**언제나 생각하고 있던 것
을 쓴 시**

**요즈음이나 예전에 마음속
에 언제나 품고 있는 생각,
남몰래 가지고 있는 생각
을 쓴 시**

나도 쓸모 있을 걸

**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
생각해 봤어요.**

**생각 끝에 하느님께서
내가 이 넓은 세상에서
뭔가 살며시 빛을 쏘도록,
내가 무언가 꼭 쓸모가 있도록
태어난 걸 거예요.**

**하늘의 뜻에 따라 노력할 테어요.
그래서 샅샅이 빛낼 거예요.**

좋은 시는 어떤 시일까요?

자연의 모습을 생생하게 붙잡은 것

감동을 주는 것

마음에 와 닿고 꾸밈이 없고 과장되지 않은 것

사람의 마음, 생활의 진실을 붙잡은 것

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붙잡은 것

급식소



급식소 아주머니께서는

항상 많이 먹으라 하신다

많이 줘야 많이 먹지.....



동물원

이상훈

사자가

크아아아앙

하고

나한테 소리쳤다

나는

으아아아앙

하고

울어버렸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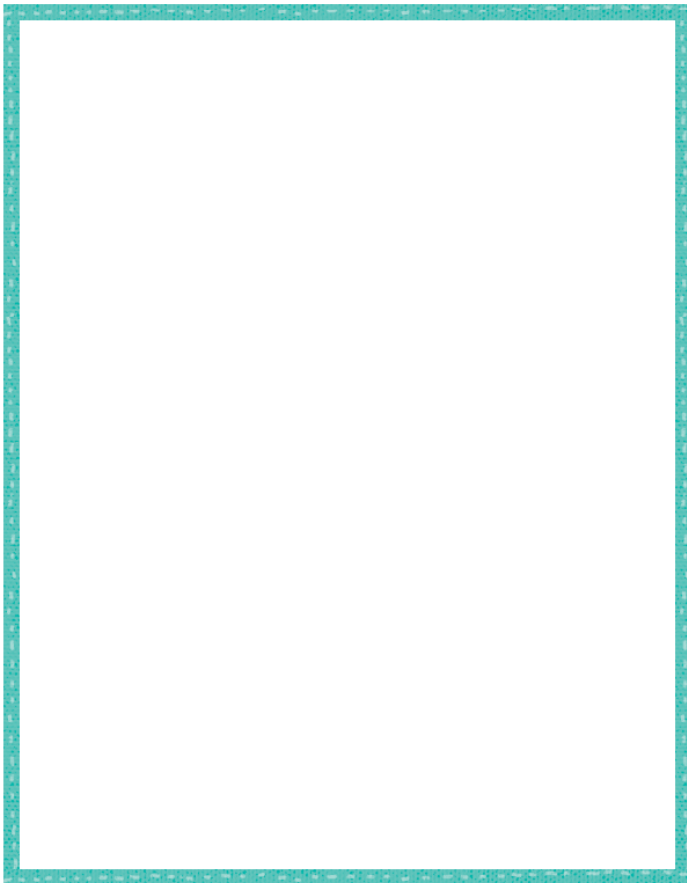
지금 보니까

사자가 울고있던 거였다

그래서

나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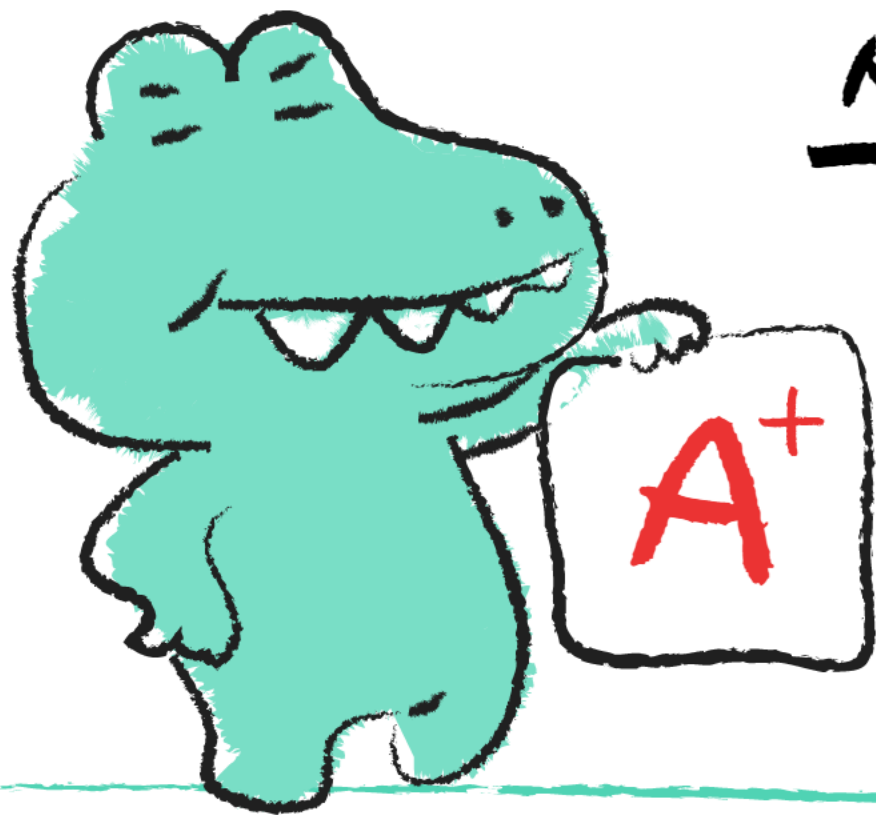
동물원을 못간다

(4) 자신의 경험이 잘 드러나도록 [꽃]을 바꾸어 써 보세요.

[꽃]을 바꾸어 써보는 것도 좋고
새로운 시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.

여러분의 어떤 느낌, 생각, 경험도 모두
시로 쓸 수 있습니다.

그것을 읽고 가슴에 울려오는 것, 마음
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것(감동)이 느껴지
면 훌륭한 시가 됩니다.



수고하셨습니다.